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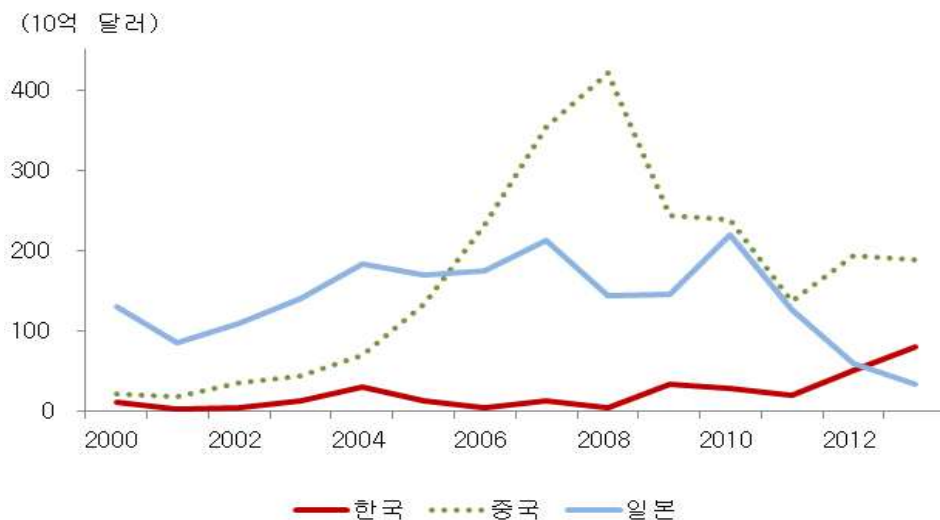
중국과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감소와 시사점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대상국인 중국¹⁾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008년 이후 축소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.

-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08년 4,206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, 2013년에는 전년대비 5.3% 감소한 1,828억 달러를 나타냄.
 -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명목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도 2010년 3% 수준에서 2013년 2.1% 수준으로 줄어들었음.
-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요 무역대상국 경기둔화 등으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세를 보인데다 수출과 내수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 노력이 있었기 때문임.

〈그림 1〉 한·중·일 경상수지 변화



자료: Bloomberg.

1)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총수출 가운데 대(對)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6.1%, 대(對)중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.1%로 수출과 수입 모두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

■ 또한,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.

- 2013년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됨에 따라 전년대비 41.7% 감소한 341억 달러를 나타냈으며,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.
- 2014년 2월과 3월에는 각각 60억 달러, 11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4개월 동안 연속된 적자에서 벗어났으나, 전월동월대비 증감율은 -14.3%, -91.9%로 여전히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.
-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있는 요인 중 하나로 계속된 무역수지 적자를 들 수 있는데, 이는 2011년 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 중단으로 대체연료 수입이 증가한데다 엔화 약세에 따른 충분한 수준의 수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임.

■ 중국과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08년 이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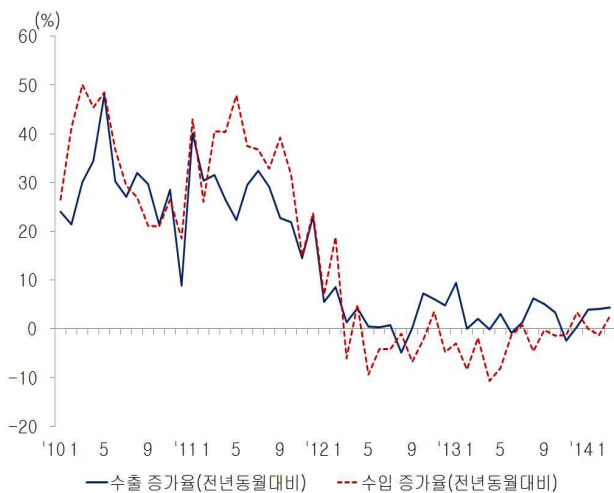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2004년 29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이후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2008년 32억 달러 규모까지 축소되었으나, 이후 다시 확대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79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음.
- 2014년 1/4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전년동기대비 44.7%나 늘어난 151억 달러를 기록하여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음.
- 명목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경상수지 흑자폭이 확대됨에 따라 2007년 0.6% 수준에서 2013년 6.1% 수준까지 확대되었음.
- 한편, 우리나라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지속이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마찰을 초래하고 환율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.²⁾

■ 2012년 이후 우리나라의 수입증가세 둔화와 대(對)중국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가 최근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확대의 원인으로 평가됨.

- 2010년 5월 이후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동시에 둔화되는 가운데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, 2012년 3월 이후에는 내수부진과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소폭 하회하고 있음(〈그림 2〉 참조).
- 우리나라의 대(對)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0년 453억 달러에서 2013년 628억 달러로 확대된 반면, 대(對)일본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10년 361억 달러, 2013년 254억 달러로 축소됨.³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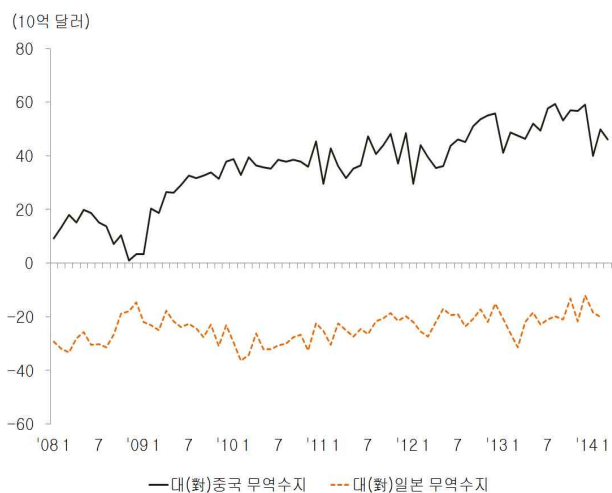
2) 김영준·정유탁(2014. 2. 20), 「경상수지 흑자 확대의 원인과 시사점」, 하나금융경영연구소.

〈그림 2〉 우리나라 수출 및 수입 증가율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.

〈그림 3〉 우리나라의 대(對)중국 및 대(對)일본 무역수지



자료: 한국은행.

■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의 원인이 수입 감소라는 점은 향후 경기회복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.

- 수입 감소의 원인은 국내 설비투자 감소와 관련이 있어 성장 동력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.
- 또한, 경상수지 흑자 확대가 계속될 경우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을 초래하여 우리나라 전체 금융시장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.
 - 환율 변동성 확대와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 등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외 리스크 관리와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.
- 원화가치 상승은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내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.

(한국은행, 국제금융센터 등)

3)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 대상국이며, 일본은 원유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수지 적자 대상국임.